



정읍시, 올 드림스타트 평가 '전국 우수' 선정

정읍시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조직 구성 및 관리, 통합 사례 관리, 지역 사회 협력, 만족도 등 4개 분야 10개 영역 28개 지표로 구성됐다. 시는 전반적인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상위 20%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드림스타트가 아동과 그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현재 드림스타트는 5명의 아동통합 사례관리사가 배치돼 254명의 아동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이며, 이들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한편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춘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새마을금고, '우리동네 MG갤러리' 개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위치한 정읍새마을금고가 지역 주민과 회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우리동네 MG갤러리'를 지난 24일 개소했다. 이번 갤러리는 금융기관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 거점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공간이다. '우리동네 MG갤러리'는 지역 예술인과 유명 작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미술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작품을 감상하며 일상 속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정읍을 대표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개소 기념 첫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김병종 작가의 개인전 '꽃, 그 너머'가 개최된다. 전시는 그의 대표작 '생명의 노래'를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예술적 여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취약계층 대상 땀감 지원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지난 24일 겨울철 연료비 증가로 인해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군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사랑의 땀감 나누어주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땀감 나누어주기는 무주국유림관리소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세대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사랑의 땀감은 숯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 되는 산물을 이용하여, 설천면(상평지, 발한마을) 2세대(6톤)에 지원했다. 사랑의 땀감은 사용하기 쉽게 다듬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다. 산림 내 인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불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간부공무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김제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1명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각종 폭력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선순자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직 사회에서 빈번하게 문제로 이어지는 성희롱·성폭력 사례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김제=곽노태 기자

502번째 헌혈... 생명을 나누는 사람

덕진구청 황옥 주무관 “한 번 용기를 내면, 그 용기가 또 다른 생명 살릴 수 있어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의 황옥 주무관을 지난 22일, 부안에서 진행한 연탄봉사 현장에서 만났다. 그가 남긴 헌혈 기록은 벌써 502회. 스스로 '헌혈 전도사'라고 말할 만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온 그는, 소박하지만 묵직한 이유로 30여 년이 넘는 시간을 헌혈과 함께 걸어왔다. 황 주무관의 헌혈 첫 시작은 1991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다. 학교로 찾아온 헌혈버스에서 담임선생님이 들려준 헌혈의 의미와 필요성이 마음에 새겨졌다. 특별한 계기 없이 친구들과 팔을 걷어붙인 첫 헌혈이었지만, 그 경험은 훗날 그의 인생을 바꾼 작은 씨앗이 됐다. 그는 전혈, 혈장, 혈소판 등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꾸준히 헌혈을 이어왔다. 헌혈은 연간 5회, 성분 헌혈(혈장 헌혈과 혈소판 헌혈)은 보름에 한 번씩 가능한 만큼 그의 헌혈 일정은 늘 바쁘다. "건강하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의 말은 답답하지만, 502회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가 헌혈 후 받는 헌혈증서는 단 한 장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다'는 마음으로 주변 동료·친구들에게 헌혈을 권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현재 그의 주변에는 다회 헌혈자가 적지 않다.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헌혈의 가치를 설명하며 직접 데리고 헌혈에 참여시키고 있다.



황 주무관의 헌신은 사회에서도 인정받았다. 그는 그간의 공로로 전북도민일보 '친절 봉사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헌혈로 널리 알려진 그의 '나눔 DNA'는 가족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둔 큰아들은 이미 헌혈에 동참하고 있으며, 중학생인 둘째와 초등학교 4학년인 셋째도 "아빠처럼 꼭 하고 싶다"고 말한다. 건강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아내는 "좋은 일 하니 응원한다"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헌혈을 하는 사람만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번 용기를 내면, 그 용기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한 번만 해보시면 압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는 기쁨을요." 황옥 주무관은 오늘도 말없이 자신의 팔을 만진다.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손길로. /이만호 기자

김제 죽산면 논 한가운데서... '낮선 축제' 성황리 마무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죽산면 홍산리 인근 논에서 '오늘의 풍야 제0회 마을잔치'(부제: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ld·오늘의 풍야(대표 최별)'와 김제농촌활력센터(센터장 최재문) 함께 했으며, 2일동안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낫살지만 매력적인 논바다 마을 축제를 구현해 마을잔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마을잔치는 논을 그대로 무대로 삼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논바다를 활용해 프로그램 대부분을 논 위에서 진행해 방문객이 흙을 밟으며 논촌의 일상과 로컬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도록 했으며, 플라마켓과 F&B존도 인근 카페 뒤편과 논 가장자리에 배치해, 논과 마을 풍경이 어우러진 축제장을 연출했다. 1일차에는 김장체험, 주민 노래자랑과 난타공연, 조피게



편집장의 북토크, 풍야 음감회가 열렸고, 2일차에는 주민 자치위원들이 준비한 쪽과 담그기와 농악 퍼포먼스, 죽산 로컬스쿨에서 길러낸 참입티가 무대에 오르는 '로컬스쿨 참입데모대회'가 열려 선배 참입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아이템을 평가하고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이번 축제는 죽산삼거리 일대에서 추진해 온 여러 로컬 프로젝트의 결실이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김제=곽노태기자



진안 안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사랑나눔

진안군 안전면(면장 차재철)은 25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 40명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7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참여자들이 약 11개월간 활동하며 받은 급여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한 것으로, 더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공익활동사업의 일환으로, 안전면 16개 마을의 경로당 시설관리, 마을 안전점검,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추진해왔다. 참여 어르신들은 꾸준한 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부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덕분에 집에만 있지 않고 밖에서 활동하며 건강도 챙기고 있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에 지정 기탁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을 지사협, 4분기 정기 회의·밀반찬 나눔

진안군 진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우석, 공공위원장 정상식, 이하 지사협)는 지난 24일, 진안을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정기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한 지역복지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민·관 협력 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 한 해 추진했던 복지 특화사업 평가와 함께 취약계층 발굴 및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26년에도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여러 신규 사업안도 검토됐다. 정기회의 후 협의체 위원들이 지난 10월에 직접 답근 마늘장아찌와 누룽지 등을 포장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은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 약 5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우석 위원장은 "위원들이 정성을 모아 준비한 마늘장아찌가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6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8329-6677 익산지사 859-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6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정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전대 RISE사업단, 부안 복지시설 3곳과 협약

전주전대학 RISE사업단은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부안군 낭만주간보호센터, 은총의집 요양원과 지역 상생형 복지-치유농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어르신·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급식 안전·영양 교육 지원, 대학의 전문 인력 양성, 지역 물품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학과 부안군 복지시설과 협력해 치유농업 기반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아동센터 봉사 대학생에 장학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4일 전북 전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강당에서 '전북ESG네트워크협의체'를 통해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봉사에 참여한 대학생 42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ESG네트워크협의체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전북개발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다가, 올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새롭게 참여하며 총 7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오상근 기자



안보공-철도공 전북,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추락사고를 집중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양 기관 협력으로 추락 재해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대를 걸면,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안전대 착용을 생선 필수 행동으로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물티슈 등 홍보 물품을 배포하는 한편, 철도역사에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하고 전광판('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 주세요')에 안전 문구를 송출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소방서, 청소년과 안전나눔 소방안전교육 실시

고창소방서는 25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고창남초등학교에서 119 청소년단과 함께하는 '안전나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창소방서 소속 고창남초등학교 119청소년단을 교관으로 직접 참여시켜 청소년이 주도하는 안전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청소년단이 소속 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소방안전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도와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경찰서, AI 인공지능 교육 통한 업무 활성화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최근 경찰 업무 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AI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업무 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와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AI 전문 강사인 '배움아카데미 조석중 대표'가 초빙되어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부터 경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까지 폭넓게 다뤘었다. 특히 보고서 업무 작성 및 사건 요약, 아이디어 생성 등 수사부터 행정업무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았다. /김제=곽노태 기자